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7년 10월 16일(월) ~ 2017년 10월 27일(금) * 현장 심사 기준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68명
- 심사회의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신청 내역 보고

종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종)
93	344	167	979	279	257	213	72	836	382	3,622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1차 심사 및 선정(629종)

종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종)
12	63	29	167	50	48	39	8	146	67	629

붙임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1차 심사 총평. 끝.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심사총평

○ 분 야 : 총류

○ 총류에는 다양한 주제의 도서가 있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소재의 도서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보기 쉬운 교양서로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현상이나 한국사회의 이해 등을 다룬 도서도 눈에 띄어 시기성이 높은 책들도 다수 있었다. 1차 심사에서는 일반 대중성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독서문화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향후 일반인들에게 쉽게 풀이한 좀 더 많은 교양도서의 출간을 기대해 본다.

○ 총류 분야의 출판경향은 총서, IT, 언론, 책읽기,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특징을 보였다. 양적으로는 코딩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도서가 많았다. 도서선정 기준은 교양도서로서 보편성의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 생활문화를 풍족하게 하는 인문학, 이 책을 통해서 독서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책인지 살펴보았다. 모두 좋은 책이었는데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 분 야 : 철학·심리학·윤리학

○ 선정도서들도 심리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책에서부터 자기계발서 & 자기치유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포함되었다. 심리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대중성 있는 책들이 더 많이 출판되어 심리학의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 자기계발과 치유의 욕구를 반영하듯, 저자와 주제 모두에서 다양한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주제 영역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도서들의 구성과 전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 범위와 전문성, 내용의 구조화된 제시 면에서 역서에 비해 창작서가 열세인 점이 아쉽다. 심리학적 전문성의 보유, 사고와 표현의 깊이, 주제와 편집의 차별성을 고려하며 선정하였다.

○ 다양한 주제와 성찰로 이끄는 내용의 저서들이 많아 교양도서로 도움이 되는 선정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고귀한 선택과 자유,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과 해안을 얻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 전체적으로 가독성과 유익함이 두드러진 책들이 많았다. 실용과 교양의 수준을 골고루 갖춘 책을 선정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혀두고 싶다.

○ 이번 상정 도서 중에는 동서양은 물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방면의 도서들이 많았다. 전문성을 띤 도서들에서는 학술적 가치를, 대중서에는 대중에게 철학을 알리기 위

한 고민이 얼마나 충실히 들어있는가를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번역서의 선정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번역서를 선정대상으로 두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상정도서들은 일반 청소년, 장년, 노년 계층을 겨냥한 대중 저술서부터 매우 전문성을 띤 학술서까지 의미 있는 다양한 저술들이 많았다. 특히 이번 상정도서 중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번역서와 일반인에게 의미 있는 번역서들이 눈에 띄었다. 심사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전문성, 대중성, 가독성을 우선 고려하였고, 현대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 서적에 방점을 찍었다.

○ 분 야 : 종교

○ 불교의 다양한 소재로 신행에 도움이 될 만한 저술이 나왔다. 특히 경전의 내용과 불교 설화 등의 내용을 현대인의 힐링에 도움이 되도록 엮어서 인상 깊었다.

○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알기 쉽게 풀어쓴 에세이들이 많았다. 특히 개인의 신앙 체험과 이력에 근거한 글들이 인상적이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갈 수 있고 인생을 성찰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 종교학 전공자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에 대한 교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였다. 종교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교 분야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쉽게 풀이된 책들을 선정함으로써 종교적 지향을 위한 활성화가 기대된다.

○ 분 야 : 사회과학

○ 시대를 반영하듯 법학과 언론 분야에서 그 본래의 존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논의들이 많아졌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과학 도서들이 많아진 점도 사회과학의 확대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 선정된 도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현실 문제를 다루는 것부터 심오한 이론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저작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 차원 높은 교양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저작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개인의 삶, 직업, 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의 서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창업 및 여성창업 등 스타트업 주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다소 편중된 나머지 주제들에 대

한 일반교양서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 심사대상 도서 중에 향간의 최고 화두인 4차 혁명을 주제로 한 책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선정된 도서 중에서도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반적인 지식과 현상 이해에서부터 구체적인 분야와 접근법을 가진 책들까지 고르게 선정하였다. 경영전략, 마케팅기법, 은퇴 후 여성, 청년의 창업과 자기계발 서적들도 매우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선정하였다.

○ 심사대상 도서들은 사회구도의 핵심에서부터 외곽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었다. 역사와 관련되면서 최근의 트렌드와 요구를 담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다. 현실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전망을 아우를 수 있어서 다양한 독자층의 지식 욕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들이었다고 판단된다.

○ 교양도서 선정에 있어 주제의 다양성과 계몽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 결과를 강조하였다. 귀찮만한 책으로서의 가치가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 우수한 도서가 많아 특정 도서들을 선정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번역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높아 전반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일 수 있음. 심사절차에 대한 안내 등, 심사과정 전반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

○ 많은 도서가 개별적 우수성을 지니고 있음. 기획, 소재, 책의 구성, 내용 등 국내서적보다 번역서에 주목할 만한 책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비교적 관심을 적게 받아왔던 주제를 다룬 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수한 책들이 많아서 그 중 더 우수한 책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경제관련 교양 및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신기술에 의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음.

○ 사회과학분야에 상정된 서적들은 최근의 사회적 트렌드와 미래의 변화를 예상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4차 산업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 신개념(킵스타터, 킷이코노미 등)에 대한 소개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 외 주제로 성공한 기업 혹은 기업인 사례를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전문적이지 않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추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서적도 많았다. 전체적으로 사회과학분야의 서적들은 기존의 딱딱하고 전문적인 내용에서 탈피하여 비전문가라도 흥미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사례 소개, 에세이 형식의 서적이 많아 향후 사회과학 분야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

로 기대된다.

○ 전반적으로 번역서에서 보다 좋은 책이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취업, 창업, 재테크 등 시사성 있는 주제의 책들이 눈에 띄었고, 이외에 고전과 역사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지혜를 구하는 책들도 보기 좋았다. 번역서 중에서는 ‘수요자 추천도서’ 중 현실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일반도서 중에는 강소기업, 한국의 경제, 4차 산업혁명, 창업 등 최신 트렌드의 책들 중에 특히 모범이 될 만한, 꼭 읽어보면 좋을 만한 도서 위주로 선정하였다. 전자책도 많지만, 종이로 된 책들도 여전히 중요하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으로 선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 미래의 교육에 대한 제안과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논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 상정도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올해 상정된 서적의 특징은 주로 정파성이 있는 저자들의 저작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교양서적으로 추천되기 어려운 서적들도 많이 상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발간되었으면 한다.

○ 도서 심사에 있어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였다. 이번 심사는 특히 전직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서적이 많았으나, ‘교양 부문’이라는 특성을 유지하여 도서를 선정하였다.

○ 분 야 : 순수과학

○ 수학과 물리, 지구과학 분야의 훌륭한 책들이 상정되었다. 올해는 국내저자들의 노력이 더욱 많이 보였다. 책의 수준과 완성도 또한 좋아서 책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이 시의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추천한 도서들이 많은 이들에게 즐겨 읽히기를 희망하며 선정하였다.

○ 후보도서 모두 정말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형식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 꼭 알았으면 하는 분야에 대한 책을 선정하였으며, 이 책들을 통해 독자들의 상식과 지식이 넓어진다면 보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지구과학에 관한 책들이 많았으며, 1차 선정에 어려움을 느낀 번역서들이 있었다. 국내저자의 저술은 창작서를 굳이 유리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도록 수준이 향상되었다.

○ 교양 과학 분야에서의 도서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국내도서는 번역도서와 비교하면 유행하는 분야의 출판이 편중되고 있어서 아쉽다. 순수과학의 각 분야의 기초 분야에서 골고루 저작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국내 저자들의 우수한 책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그런 한편으로 뇌과학 등 유행하는 분야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분 야 : 기술과학

○ 다양한 영역의 특색 있는 교양서들이 많이 출간되었음. 국내도서도 발전이 엿보임. 다만, 운동서적, 식품서적은 단순한 운동방법이나 레시피 소개가 많아 교양서로는 추천할 만한 책이 많지 않았음

○ 식품/의학/한의학/건강 분야의 131종 도서는 국민의 정서함양과 통합적 지식습득 및 국민의 독서습관을 지속적 키우는 기준으로 24종 선정함

○ 선정된 식품, 의학, 한의학, 건강 분야의 책 중 교양도서로서의 의미와 내용에 중점을 두었고, 많은 지식전달 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나 활용법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들을 선정함

○ 기술과학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인 사고의 중요성, 육아, 커닝 등을 과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 가정과 교육 그리고 건강한 삶은 요즘 시대에 트렌드다. 힐링과 소통 등의 내용들이 흥수처럼 책으로 출간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 부모교육서나 전원생활 가이드북 형태가 많이 상정되었는데, 기존 도서와의 차별성, 도서 자체의 특수성, 독자와의 공감성 등에 집중해서 심사하였음.

○ 분 야 : 예술

○ 미술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론과 접근법을 다룬 작품이 주류이다. 미술사와 미술이해를 작품위주보다 제작배경, 사회정치적 연관 등 다양한 관점을 시도하는 경향이 주류이며 추가적으로 디자인, 전시 등 미술의 영역을 확대, 활용하는 신주류도 보인다.

○ 다양한 관심을 가진 저서와 역서가 있었다. 그 중 실용서나 Guide book 성격의 도서는 배제하고 일반 독자들이 풍성한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전

통음악, 예술에 대한 도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쉬웠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각, 접근법을 가진 저, 역서가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 상정도서 중 예술분야(사진/건축/스포츠) 교양도서로서 가치가 높은 도서가 다수 있었으며, 선정된 도서들은 독자들에게 인문학 사고의 틀을 확장시키고 통섭의 교양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상정도서들 중 다양한 예술적 내용들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작도서들이 눈에 띄게 표현되어 지식문화발전과 국민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리라 매우 기대됨.

○ 상정도서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소재와 직업군의 작가들이 책 출판을 했다. 그 중에서 선정된 도서들은 대중적이지만 참신하고 매체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분 야 : 언어

○ 우리나라의 교양도서 중 언어 관련 도서는 상당 부분 올바른 언어 사용에 집중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간간히 바람직한 언어 문화적 가치 구현에 대한 논저가 있었으나 드물었고, 특히 이번 상정도서에는 교재류가 상당히 많았던 반면 그러한 담론적 저술이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저자의 노고가 엿보이는 것들이 있어 고려대상이 되었고 세종도서의 취지에 맞는 도서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타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언어 분야의 교양도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상정 도서의 절반이상이 개정판이거나 학습교재류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 도서의 숫자가 상당했다는 점도 아쉽다. 언어 분야의 교양도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독자의 이해와 수용가능성, 한국인의 언어생활의 기여 정도, 내용의 참신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 더불어 세부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다양한 주제의 도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분 야 : 문학

○ 상정도서들은 현대인들의 삶에 유익함과 자기성찰을 갖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닌 유형들이 적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읽기를 유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을 갖춘 책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상정도서는 대부분 번역서 중심의 책이었다. 이제야 번역 출간된 책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놀랐고, 이제라도 한국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소재적으로 다양한 도서들이 많아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다양한 추체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수필장르의 특징이다. 하지만 그런 특징이 무정형의 모든 글쓰기를 다 담보한다는 뜻은 아니다. 수필 독서의 즐거움은 글의 재치와 문장의 위트에서도 오지만 궁극적으로 삶에서의 진지한 주제와 감동과 닿아야 할 것이다. 블로그 글을 모아놓은 듯한 책, 개인적 편지를 모아놓은 책, 신변잡기류의 글을 모은 책들은 심사에서 배제했다. 뉴미디어시대에 글과 그림을 조합한 책들은 독자의 접근성 차원에서 의미 있었지만 그림이 더 중점이 놓였던 책들은 심사 배제 대상이 되었다. 결국 수필에서 독자가 대하고 싶은 것은 삶에 대한 통찰과 감동이다. 글의 통일성과 유려한 문장력이다. 그 지점에 방점을 찍으며 심사에 임했다.

○ 상정도서를 살펴보면 먼저 여러 직업의 작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삶을 조명하는 도서를 출판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듯 여행, 음식과 관련된 도서들이 많이 발견된다. 심사에 있어 무엇보다 독자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지 그리고 독자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고려하였다. 물론 글쓰기의 유려함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도 발견된다. 자기계발과 관련된 도서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다. 이 방면의 도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깊은 고민이 담긴 글쓰기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번역서와 비교할 때 창작 도서의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향후 보다 의미있고 개성있는 콘텐츠가 담긴 도서들이 출판되기를 기대해 본다.

○ 상정도서 중 국내작가들의 창작이 비교적 많지 않았고, 성격 규정이 어려운 창작물이 많았다. 앞으로 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다양한 언어, 분야, 작가의 작품들이 많았다. 지명도보다는 교양도서로서의 가치를 갖는 번역서들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번역되고 있어 지원사업의 유의미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내 창작소설보다 외국소설 번역출판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반영하였으며, 국내소설들은 주제, 소재, 작가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 독자들의 교양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는 도서가 많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국내 작가의 작품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어느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전통을 접하게 해주는 작품이 많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작품들이 출판되었으나 난민, 전쟁, 아동인권, 어린이의 내적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어둡고 심각한 주제들도 부각되고 있으며 여전히 번역서보다 창작도서 비율이 훨씬 낮은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상정도서는 문학과 그림의 예술

성, 그리고 표지와 면지, 표제지 등과 같은 페리텍스트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하였다.

○ 전반적으로 시 모음집, 개인시집, 시 평론서 등 시와 관련된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성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창의성이 돋보이며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양도서들은 지명도는 높지 않으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좋은 시집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저자 설명, 작품유래 등 참고서와 같은 도식적인 책이 많거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거나 문장이 어려워 읽기 불편한 점은 아쉽다.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모아서 만든 자료집 수준의 책들도 불편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속 인물을 되살리게 해준 책들은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다.

○ 번역서가 많은 데 비해 국내 창작서가 많지 않고 주제 또한 다양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면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꼭 읽혀보고 싶은 책들을 고심하여 선정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참신한 주제로 새로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책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국내저자들의 창작들이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번역서들의 경우 또한 풍족하지 않아 더욱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이 찾아 선정한 책들은 발상의 참신함이나, 서술의 탄탄함, 흥미로운 흡입력 등 두루 추천할 만한 책들이라 다행스럽습니다. 조금 더 어린이·청소년들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전체 권수에 비해 국내 창작 도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번역서 위주라 아쉬웠습니다. 책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국내도서 위주 선정을 하였습니다. 새롭거나 독창적인 부분은 다소 아쉬웠으나 여러 출판 기획을 보면서 앞으로 그림책이 좀 더 다양한 수요와 소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랑받는 창작 그림책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번역서가 많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번역서의 경우,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소개된 것, 그림이 돋보인 점은 발전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보전달의 성격을 가진 그림책도 비교적 딱딱하지 않게 구성된 그림책들이 돋보였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과 일반인들도 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이 주목되었다. 작품의 수준은 질적으로 격차가 많이 났지만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몇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 상정도서들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삶의 양태들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가치와 윤리가 개성적이고도 진솔하게 표현된 작품들을 주목하였다. 심사위원과 토론을 통해 투명하고 균형적인 선정을 추구했다.

○ 분 야 : 역사·지리·관광

○ 역사, 특히 한국사는 교양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흥미 위주의 역사책이 사실을 왜곡하고 가치관을 혼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상정 도서 가운데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등 교양도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상정도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흥미 위주의 도서도 적지 않았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선정 제한사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도서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다양한 주제로 관심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다소 남는다.

○ 동양사 분야에서 이번 사업 기간에 간행, 출판된 도서 중에는 역사를 독특한 관점이나 주제로 설명하고자 하는 책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독자적 내용을 중시하여 선정하였으나, 번역서들은 이러한 점을 충족했음에도 선정요건에 맞지 않아 선정하지 못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 우수한 번역서들을 선정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

○ 서양사분야 저서 및 번역서는 책의 시대적 가치, 저자의 학문적 전문성, 대중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저작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도서는 경제사, 전쟁사, 기독교사, 인물사, 정치사상사, 역사이론과 역사교육 등 서양사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서양사분야에서 국내저자들의 창작서보다 번역서가 많다는 상황을 보면, 국내 저작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관광지리 분야에서 상정된 도서는 개인의 국내·외 답사여행기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역 탐방기, 전문가의 문학·지형 해설서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수준에서 폭 넓은 스펙트럼을 보였다. 참신성과 독창성, 가독성을 고려하고 국민의 정서함양과 교양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엄선하였다.

○ 상정도서 대부분이 여행 및 관광에 대한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들의 대단한 모험기들이 많이 올라왔다. 일부 도서는 전문가 이상의 수준과 깊이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인문학적 정서와 가치가 높은 책들도 다수 보였다. 선정과정은 심사위원간 크로스체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했다.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 2017년 11월 14일(화)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30명
- 심사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2차 심사 선정 내역 보고

종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총)
12	63	29	167	50	48	39	8	146	67	629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2차 심사 및 선정(422종)

종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
12	36	19	111	34	30	26	8	100	46	422

※ 종류 및 언어 분야는 2차 심사 없음.

붙임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2차 심사 총평. 끝.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심사총평

○ 분 야 : 철학·심리학·윤리학

-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인문학적 교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하였다. 내용의 충실성, 일반인의 흥미, 독창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심리학이나 인문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도서를 추천하였다.
- 1차 선정도서 중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서를 추가 선정 하였다. 특히 번역서의 경우 학문적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는 내용의 충실성이나 학술적 가치, 그리고 대중성 모두 충족하여 대중의 교양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인문학 서적의 대중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질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좋은 번역서의 선정 비율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영역에서 인문학이 패션이나 음식 등으로 확장되는 것은 좋은 그리고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 분 야 : 종교

- 불교의 일반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쉽게 불교의 문화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서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인문학적인 교양도서의 가치를 잘 정리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말 일반교양 종교 도서를 선정할 수 있었다.

○ 분 야 : 사회과학

-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의 도서도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킥스타터, 깃이코노미,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 관련서적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러면서도 일상, 기본적 경영 및 마케팅 등 변하지 않는 중요도서도 선정했다.
- 4차 산업혁명이 미래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도서들과 창업과 관련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사회트렌드와 분야별 교양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교양서들을 골고루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사회 경제 현상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변화하는 기술에 따른 경제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도서선정에 중점을 두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도서에 높은 평가를 두었다.

- 교육학 전반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지식과 최신의 정보, 그리고 깊은 통찰력 제공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 1차 선정 도서 중에서, 현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내용의 깊이와 독창성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 1차 선정도서에서 분야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였고 독자들의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재선정하였다.
-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근 미래사회에 발전적 사회구상을 성찰하게 돕는 도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1차 선정도서 중 교양서로 미흡한 서적을 제외하고, 정치/행정에 관한 교양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하였다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 모두가 흥미롭게 교양을 진작시킬 수 있는 서적들을 선정하였다.

○ 분 야 : 순수과학

- 국내 저자, 번역가를 어떻게 격려·발굴할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국내 저자들의 책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와 폭을 갖춘 책들이 더 나오기를 기대한다.

○ 분 야 : 기술과학

- 식품, 의학, 한의학, 건강 분야에 일상문화에서 영감을 주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서를 다수 선정하였다. 책의 주제별 내용이 편중되어 있어 많이 아쉬웠고 교양 부분인 만큼 일반인이 궁금해 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워 교양 지식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산업·기타 분과는 영유아·청소년 등 대상별로 다양한 육아 지침 관련 교양서와 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양서가 다중 상정되었다. 2차 심사는 도서 내용의 충실성과 접근성의 질을 고려하여 제고하였다.

○ 분 야 : 예술

- 전통미술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감성과 작품을 연계한 노력을 평가하고, 현대 한

국미술사의 형성에 기여한 인사의 기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서구와 현대 한국 미술의 이해를 위한 배경과 사적고찰을 평가할 필요도 있다.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방법론상 역사적 배경과 연계된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근/현대음악이나 고전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양서적으로서 또 새롭게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부문이 강조된 점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세종도서의 2차 선정기준은 우선 분야 내에서 어느 한 소분과에 쏠림 현상 없이 고루 안배하여 생활도서로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사회전반에 인문학적 교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융합된 도서로서 내용의 충실성과 교양서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분 야 : 문학

○ 다양한 관심의 아이템들이 수필로 출간되었다. 환경, 시골장터, 현대시와 대중문화의 만남, 자연 속에서의 사색, 나이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숙고 등. 수필집 중에서 독자들이 생활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산문을 만날 수 있었고, 독자들이 이 글들을 통해 깊은 서정과 삶의 통찰을 얻으리라 기대한다.

○ 소설이기는 하나, 단순한 소설적 개념 보다는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타문화에 대한 상상력, 혹은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는 문학적 상상력이 뚜렷한 작품을 중심으로 채택하여 유의미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 국내소설은 수상 작품집들이 많아서 여러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이 널리 읽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인물 전기, 만화 서사, 그리고 해외의 고전 번역과 해외문학 이해가 포함되어 다양한 교양서가 선정된 것이 특징이다.

○ 1차 상정도서 중 출판사, 저자 중복 및 개정판 여부를 검토하여 2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폭넓은 사고력과 바른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교양서와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 책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힘이 되고,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 1차 선정도서 가운데 교양도서로 폭 넓게 읽힐 수 있는 시집, 명화 감상, 글쓰기, 문학작가 평론서, 역사 관련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흥미와 교양 지식 습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1차 선정에서 올라온 도서 중 출판사 및 저자 중복을 제외한 도서들이 어린이의 정서에 따뜻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도서들로 선정했음.

○ 분야 내 타 분과와 교차 검토하여, 내용의 충실성과 독창성을 고려하였고, 보편적 보급 가치가 높은 도서를 선정하였다.

○ 역사, 예술, 언어, 공간 등 인간의 삶과 사유, 윤리와 지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 문장력이 뛰어난 작품이자 책을 주목, 심사하였다.

○ 분 야 : 역사·지리·관광

○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깊이와 철학이 담긴 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이 가능했던 것은 칼라, 해양, 공룡, 문학 등 다양한 소재를 여행과 함께 풀어낸 내공 있는 저자들의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이 올라와서이다. 주제의 독창성과 내용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책들이 세종도서 교양도서로 선정, 배포된다면 여행서적의 수준을 높이고 흥미로운 교양도서로서 사회전반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 분야에서는 해방 이후 현대사를 다룬 도서가 많았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은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서술한 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아동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술된 역사 교양 도서를 특별히 포함시켰다. 그 밖에 다른 도서들도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1차 심사도서 중 개정판 및 증보판 등을 제외하고, 동서양사 교양수준을 높일 수 있는 몇 종을 추가하였다. 일반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도서 및 한국사회의 동서양사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도서 위주로 선정하였기에, 한국사회의 교양 지식의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3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10:30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13명
- 심사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2차 심사 선정 내역 보고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종)
12	36	19	111	34	30	26	8	100	46	422

※ 총류 및 언어 분야는 2차 심사 없음.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3차 심사 및 선정(220종)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
6	21	10	59	17	16	13	4	51	23	220

○ 심사총평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이하 ‘세종도서 교양부문’)은 기존 연 1회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도서 구입과 보급을 연 2회로 나누어 하게 되니, 출판사에는 자금 흐름이 빨라져 좋고 도서관에는 신간도서를 시기적절하게 보급할 수 있게 되어 이롭다고 하겠습니다.

세종도서 교양부문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50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개 분야 총 68명의 심사위원이 접수도서 3,622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세종도서 사업의 본래 취지와 사업목적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분야 220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선정종수, 번역서(전체 선정 종수의 20%) 및 저자(저자 당 선정도서 1종) 제한 등으로 인해 충분히 훌륭한 작품임에도 선정하지 못한 도서도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번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도서가 우리 출판계의 창작 활동을 고취시키고, 출판 산업 진흥 및 지식 기반 사회 조성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종도서 교양부문에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소재의 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코딩, 빅이코노미 등 새로운 트렌드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주제의 책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찾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책들 또한 많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양한 주제와 작품을 골고루 안배하여 선정도서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정치 시류성이 강한 책들이 많았는데, 현재 정치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가 반영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이중 객관적 시각을 갖추고, 교양부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각 분야 선정도서로 일부 아동·청소년 책도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사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책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어린이 역사 교육의 중요성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역사서 선정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역사 분야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가.’ 여부를 가장 크게 고려하여 심사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가독성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세종도서 사업이 단순히 도서만 선정하여 보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에서 보다 많은 독자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아쉬운 점도 보였습니다. 가장 적은 도서가 접수된 언어분야의 경우, 대부분 학습 교재 성격이 강한 도서 위주라, 다양성 측면이 부족하여 심사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서도 언어인문학 등 보다 다양한 책이 출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양서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좋은 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맛집 투어, 가이드북, 레시피 책들이 많아 선정에서 배제하였고, 기술과학 분야는 유아·자녀교육서 편중 현상이 심했는데, 이중 창작서들은 주제나 내용, 형식면에서 비슷한 것이 많아 다양성, 질적 측면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는 학술적 가치는 충분하나 전문성이 너무 강해 교양서로 적합하지 않은 도서는 안타깝지만 배제하였습니다.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는 역사적, 객관적 사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되, 교양서로서의 대중성과 가치를 담은 책

들을 선별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술서 성격이 강한 도서는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신청하여 제대로 평가받고 선정될 기회를 갖도록 출판사 대상 사업 안내와 홍보가 강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세종도서 교양부문에는 전 분야에 걸쳐 좋은 번역서가 많았습니다. 번역서 선정 제한으로 인해 교양서로 충분히 좋은 책임에도 선정하지 못한 번역서가 많아 매우 아쉬웠습니다. 철학·심리학·윤리학, 순수과학, 사회과학, 문학,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번역서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저자의 좋은 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좋은 번역서가 우리 출판계의 다양성과 질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독자의 가독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판 산업 진흥’ 및 ‘지식 기반 사회 조성’이라는 본 사업 목적을 살려 번역서 비율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소홀히 심사되는 분야가 없도록 앞으로도 심사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종도서 사업에 관심 갖고 지원해주신 출판관계자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사업이 하루 빨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출판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일동

위와 같이 선정함.

2017년 11월 24일

선정위원장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선정위원

붙임.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도서 목록 1부. 끝.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목록

○ 10개 분야, 220종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1	총류	구보 씨가 살아온 한국 사회 : 해방 이후 한국의 풍경 ¹	살림출판사	김병희	
2	총류	뉴스 사용 설명서	(주)우리교육	모리 다쓰야	김정환
3	총류	대구수목원	도서출판 학이사	이정용	
4	총류	만날 읽으면서도 몰랐던 책 이야기	파란정원	구원경	
5	총류	빼딱한 책읽기	산지니	안건모	
6	총류	헌법 다시 읽기	(주)자음과모음	양지열	
7	철학/심리학/윤리학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 이야기	철수와영희	이유미	
8	철학/심리학/윤리학	공인의 품격	유아이박스	김종성	
9	철학/심리학/윤리학	기쁨과 긍정의 종교	도서출판 서광사	한상연	
10	철학/심리학/윤리학	깊은 이미지	궁리	이종진	
11	철학/심리학/윤리학	나는 불완전한 내가 고맙다	동아일보사	강경희	
12	철학/심리학/윤리학	나는 오늘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림	이진희	
13	철학/심리학/윤리학	다산, 행복의 기술	커뮤니케이션북스	장승구	
14	철학/심리학/윤리학	독서는 습관이다	지식과감성#	장오수	
15	철학/심리학/윤리학	사랑에 대하여	(사)한국물가정보	장석주	
16	철학/심리학/윤리학	새로운 인생 액티브시니어	도서출판센	김가배 외 6인	
17	철학/심리학/윤리학	생각숲으로 떠나는 질문여행, 어린이를 위한 독서하브루타	팜파스	황순희	
18	철학/심리학/윤리학	성에 대한 알지 않은 지식 : 정신분석학부터 사회학까지 다양한 학문으로 바라본 성	을유문화사	이인	
19	철학/심리학/윤리학	열 길 물속보다 더 깊은 마음속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심리 교실	길벗어린이	강현식	
20	철학/심리학/윤리학	의심의 철학	휴머니스트출판그룹	이진우	
21	철학/심리학/윤리학	자살 공화국 : 한국인은 왜 자살하는가?	세창출판사	김태형	
22	철학/심리학/윤리학	지혜를 읽는 시간 :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다섯 가지 지혜에 대하여	책세상	유디트 글뤼크	이은미
23	철학/심리학/윤리학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 아름다운 삶을 위한 철학 기술	책세상	빌헬름 슈미트	장영태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24	철학/심리학/윤리학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주)프리렉	조명국	
25	철학/심리학/윤리학	표현해야 사랑이다	끌리는책(이코북)	이민규	
26	철학/심리학/윤리학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초월철학강의	마인드큐브	프리드리히 슐레겔	이관형
27	철학/심리학/윤리학	희생되는 진리	홍성사	오지훈	
28	종교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새물결플러스	우종학	
29	종교	남방실크로드신화여행	주식회사 아시아	김선자 외 7인	
30	종교	다시 이어지다 : 궁극의 욕망을 찾아서	김영사	한바다, 성혜영	
31	종교	마음 밥상	(주)법보신문사	일운	
32	종교	복음의 공공성	비아토르	김근주	
33	종교	불교설화와 마음치유	도서출판 동인	백원기	
34	종교	오직 한 생각	한생각	종범	
35	종교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	마음의숲	이필원	
36	종교	한홍 목사의 종교개혁 히스토리	규장	한홍	
37	종교	함석헌 사상사 인문학적으로 읽기	지식과감성#	윤경선	
38	사회과학	0.1밀리미터의 혁신 : 5년 안에 50배 성장한 발류다 디자인의 비밀	다산북스	모리야마 히사코, 닛케이디자인	김윤경
39	사회과학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경제의 힘	증양경제평론사	최연구	
40	사회과학	강소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아라크네	최용석	
41	사회과학	공간정보 이야기	책미래	김인현	
42	사회과학	공부 공부 : 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도서출판 따비	엄기호	
43	사회과학	교사생활 월령기	에듀니티	경기교육연구소	
44	사회과학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세종서적	폴 김, 함돈균	
45	사회과학	교육이 미래라고 믿는 당신에게, PRIZE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PYMATE)	데일 투사코프	유성상
46	사회과학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도서출판길벗	짜우포츨	남혜선
47	사회과학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나름북스	강동목 외 13인	
48	사회과학	그건 혐오예요	(주)행성비	홍재희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49	사회과학	그녀의 창업을 응원해	스마트북스	정민정	
50	사회과학	기 이코노미	(주)더난콘텐츠그룹	다이앤 멀케이	이지민
51	사회과학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 우리 모두를 위한 정치학 특강(1)	궁리	김만권	
52	사회과학	나의 첫 독서토론모임	밥북	지윤주	
53	사회과학	난생 처음 경제 공부	(주)시공사	박유연	
54	사회과학	내 인생 저만치에 죽음이	(주)북랩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55	사회과학	다중격차(2) : 역사와 구조	페이퍼로드	전병유 외 8인	
56	사회과학	당신의 직업이 사라진다	세종서적	데이비드 서, 이선	
57	사회과학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 서울국제포럼의 제언	(주)더클라우드나인	정구현 외 17인	
58	사회과학	대한민국 교사로 산다는 것	(주)우리교육	김재훈	
59	사회과학	대한민국의 시험 : 대한민국을 바꾸는 교육혁명의 시작	다산북스	이혜정	
60	사회과학	도시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 2016 지구환경보고서	재단법인 환경재단	월드워치연구소	황의방, 김종철, 이종욱
61	사회과학	로컬에듀	에듀니티	추창훈	
62	사회과학	리영희를 함께 읽다	(주)창비	고병권 외 9인	
63	사회과학	마을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한울엠플러스(주)	빈민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64	사회과학	무기화된 거짓말	주식회사 레디셋고	대니얼 J. 레비틴	박유진
65	사회과학	민주주의의 시간 :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후마니타스	박상훈	
66	사회과학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후마니타스	한완상	
67	사회과학	소금아 길을 묻는다	민속원	배성동	
68	사회과학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알에이치코리아	주홍식	
69	사회과학	쓸모없는 아이들(1-2) : 당신이 있어야 할 곳	지식과감성#	박풍휴	
70	사회과학	옆치락뒤치락 세계 경제 이야기	풀빛	석혜원	
71	사회과학	역사학자들이 본 역사 속 행정 이야기	도서출판 헤안	김백철 외 9인	
72	사회과학	연장전	한겨레출판	박점규	
73	사회과학	영원한 맞수와 적수들의 세계	(주)학지사	이병욱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74	사회과학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	산지니	백태현	
75	사회과학	예술, 경제와 통하다	홍문각	최병서	
76	사회과학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주)학지사	오인탁	
77	사회과학	인도주의의 눈으로 바라본 착한 기부, 나쁜 기부	도서출판 아르케	신상문	
78	사회과학	인문학의 거짓말	인물과사상	박홍규	
79	사회과학	인스타그램 : #해시태그 마케팅	디지털박스	조영빈, 김수빈	
80	사회과학	일상기술 연구소	어크로스	제현주, 김정연	
81	사회과학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부키(주)	카트리네 마르살	김희정
82	사회과학	정치와 민주주의 : 세계사가 속닥속닥	도서출판 북멘토	이정화	
83	사회과학	제4의 물결이 온다 : 4차 산업혁명, 부의 기회를 잡아라	(주)지식노마드	최윤식, 최현식	
84	사회과학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도서출판광문각	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5	사회과학	중동 경제 3.0	(주)해피박스투유	권해룡	
86	사회과학	지민의 탄생	휴머니스트출판그룹	김종영	
87	사회과학	채소의 인문학 : 나물민족이 이어온 삶 속의 채소, 역사 속의 채소	도서출판 따비	정혜경	
88	사회과학	출근이 칼퇴보다 즐거워지는 책	책들의정원	장한이	
89	사회과학	코딩시대	클라우드박스	바트(BArt), 장재용	
90	사회과학	킵스타터 캠페인	클라우드박스	박한진	
91	사회과학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주)한솔수북	이지호, 이현우, 서복경	
92	사회과학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사이언스박스	오대영, 임경빈, 배준, 오지현, 민소영	
93	사회과학	품격이 전부다 : 기업과 개인의 미래가 국가평판에 달려 있다!	매경출판	김대영	
94	사회과학	플랫폼 레볼루션	부키(주)	마셜 W. 벤 엘스 타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G. 파커	이현경
95	사회과학	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코난박스	김태일	
96	사회과학	흔들리며, 흔들리지 않고	도서출판기역	박은서 외 7인	
97	순수과학	PANDEMIC : 바이러스의 위협	도서출판 나눔의집	소니아 샤	정혜영
98	순수과학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아라온과 떠나는 북극 여행	(주)지식노마드	신동섭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99	순수과학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도서출판 더숲	이강민	
100	순수과학	리처드 파인만	반니	크리스토퍼 사이크스	노태복
101	순수과학	매력적인 피부 여행	(주)미래엔	엘 아들러	배명자
102	순수과학	바이오닉맨 : 인간을 공학하다	MID엠아이디	임창환	
103	순수과학	별별 생물들의 희한한 사생활	을유문화사	권오길	
104	순수과학	사이언스 브런치	(주)글항아리	이종필	
105	순수과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 교실	한즈미디어	모리야마 신페이	고경옥
106	순수과학	야밤의 공대생 만화	뿌리와이파리	맹기완	
107	순수과학	우연의 설계	반니	마이클 브룩스와 10인	김성훈
108	순수과학	중력과 과학수사대	도서출판 동아시아	오정근	
109	순수과학	지구를 소개합니다 : 땅속에서 우주까지 45억 살 지구 인터뷰	(주)우리교육	신규진	
110	순수과학	진짜 나를 만나는 뇌 과학 시간	우리같이	김수용	
111	순수과학	집 안에서 배우는 화학	(주)양문	안 베르쉬에, 니콜라 제르베르	정상필
112	순수과학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청림출판	이준호	
113	순수과학	화학제품 : 약이야? 독이야?	(주)지학사	김희정	
114	기술과학	공학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주)도서출판 나무생각	황진규	
115	기술과학	기후와 날씨, 건강 토크 토크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반기석, 반기성	
116	기술과학	나는 워킹맘입니다 : 일하는 엄마를 위한 행복한 육아 이야기	(주)창비	김아연	
117	기술과학	두부 예찬 : 두부조림만 먹는 당신을 위하여	시대의창	김영빈	
118	기술과학	먹는 과학책	도서출판 나무야	김형자	
119	기술과학	불안한 내 아이 심리처방전 : 민감하고 내성적인 아이를 위한 모든 것	(주)예문아카 이브	폴 폭스먼	김세영
120	기술과학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주니어북스	하지원	
121	기술과학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아이	(주)시공사	송미경, 김학철	
122	기술과학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 고래아빠의 엄마챙김 육아 이야기	씽크스마트	정용선	
123	기술과학	암에 걸렸다는데, 저는 건강히 잘살고 있습니다	(주)헬스조선	호사카 다카시, 이마부치 게이코	민경옥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124	기술과학	약국에서 알려준 궁금한 약 이야기	조운커뮤니케이션	박정완	
125	기술과학	옛 농사 이야기	도서출판 늘녘	전희식	
126	기술과학	완벽하지 않아서 행복한 스웨덴 육아	미래의창	홍민정	
127	기술과학	우리 학교 장독대	철수와영희	고은정	
128	기술과학	잠자기 전 15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위즈덤하우스	이영애	
129	기술과학	책문화공간과 도시재생 : 홍대앞 책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최준란	
130	예술	건축의 표정	(주)글항아리	송준	
131	예술	고려대장경판	열린어린이	최연식	
132	예술	그가 있었기에 : 최순우를 그리면서	(주)진인진	김홍남 외 32인	
133	예술	마흔의 여가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철원	
134	예술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 작곡, 지식과 과학의 반영	도서출판갈무리	김진호	
135	예술	시인 유종인과 함께하는 조선의 그림과 마음의 상상블	나남출판사	유종인	
136	예술	아빠랑 골프치러 가자	커리어북스	신동주	
137	예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자란다	눈빛출판사	이보령	
138	예술	아트 비하인드	(주)복이십일	변종필	
139	예술	우리 신부님은 사진가	눈빛출판사	장궁선	
140	예술	음악하는 뇌	심설당	이석원	
141	예술	한국음악, 한국인의 마음 : 자연 따라 흐르는 우리 음악 이야기	열화당	한명희	
142	예술	한국인이 캐넌 그리스 문명	도서출판 통나무	김승중	
143	언어	단어가 인격이다 : 당신의 품격을 좌우하는 단어 활용 기술	위즈덤하우스	배상복	
144	언어	품격 있는 글쓰기	(주)푸른길	김세중	
145	언어	한국어, 문화를 말하다 : 한국어 문화언어학 강의	(주)도서출판하우	조현용	
146	언어	헬로 아틀라스	한즈미디어	벤 핸디코트	윤계원
147	문학	1995	(주)도서출판강	김형주 외 7인	
148	문학	100명의 피카소	(주)미래엔	바이올렛 르메이	한아름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149	문학	1945년 여름	도서출판 보 고사	김석범	김계자
150	문학	J.M. 배리 여성수영클럽	북레시피	바바라 J. 지 트워	이다희
151	문학	거미 엄마, 마망 : 루이스 부르주아	(주)씨드북	에이미 노브스 키	길상효
152	문학	거짓말 손수건, 포포피포	(주)조선에듀 케이션	디디에 레비	김주경
153	문학	그대를 듣는다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정재찬	
154	문학	그때 그곳에서	마음산책	제임스 설터	이용재
155	문학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명화 한 조각	미르북컴퍼니	양진모	
156	문학	그림의 결	위즈덤하우스	김선현	
157	문학	긴 여행	풀빛	프란체스카 산 나	차정민
158	문학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주) 도서출 판 푸른숲	타라 설리번	이보미
159	문학	나의 인생 이야기 자서전 쓰기	시간여행	조성일	
160	문학	남북이 함께 읽는 우리 옛이야기	(주)박이정출 판사	김종군 외 9인	
161	문학	다시, 봄·봄	도서출판 단 비	전상국 외 6인	
162	문학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 : 과학액션 융합스토리 단편선	사단법인 모 먼트	정승락 외 7인	
163	문학	동물들의 인간 심판 : 호모 사피엔스, 동물 법정에 서다	책공장더불어	호세 안토니오 하우레기, 에두 아르도 하우레 기	김유경
164	문학	루쉰의 사람들	도서출판 선	주정	문성재
165	문학	마티스와 피카소의 악수	도서출판 호 미	조봉옥	
166	문학	막동아, 한강에 배 띄워라	도서출판키다 리	박수현	
167	문학	비밀의 도서관	매경출판	올리버 티얼	정유선
168	문학	뽀빠뽀빠 : 다섯 뭉뭉으로 된 왕자 교과서	(주)조계종출 판사	미상	현진
169	문학	상추씨	(주)사계절출 판사	조혜란	
170	문학	생각의 산책	철학과현실사	이수정	
171	문학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위즈덤하우스	성기영	
172	문학	소리 산책	불광출판사	폴 쇼워스	문혜진
173	문학	손 큰 통 큰 김만덕	우주나무	정하섭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174	문학	수인(1-2)	(주)문학동네	황석영	
175	문학	슬픈 강아지, 새드	터치아트	샌디 퍼셀	이창식
176	문학	시가 나를 안아준다	(주)민음인	신현림	
177	문학	아이들은 저마다 빛나는 별입니다 : 작은 학교의 기적, 정읍 수곡초등학교	그물코출판사	이석문	
178	문학	여공 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후마니타스	루스 배리클러 프	김원, 노지승
179	문학	여자의 독서	다산북스	김진애	
180	문학	역사소설 작가수업	생각출판사	박상하	
181	문학	옛지도와 함께하는 한시 여행 : 인천으로 가는 길	채륜	이영태	
182	문학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야마시로 세이쉼 외 10인	손지연, 조정민, 광형덕, 심정명
183	문학	용감한 보스테리	비룡소	아셀 아야포바	이미하일
184	문학	우리 꽃, 우리 나무	섬아이	양재홍, 박신식, 박혜선, 한상순, 이묘신	
185	문학	우리 이야기에 키 기울여주세요	(주)아름주니어	알랭 세레스	박찬규
186	문학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열화당	존 버거	김현우
187	문학	우리는 고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롭다	(주)알마	김규항	
188	문학	울지 않는 소년	드림컴어스	황재오	
189	문학	이 배를 타길 정말 잘했어!	도서출판 이후	박경화	
190	문학	인문학을 안은 의학이야기	케포이북스	김민섭	
191	문학	자연에서 읽다	도서출판 낮은산	김혜형	
192	문학	제11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품집	은행나무	황정은 외 6인	
193	문학	중요한 문제	이야기꽃	조원희	
194	문학	초년의 맛	(주)창비	앵무	
195	문학	콩콩콩! 탐정 개와 도서관 대소동	상상스쿨	줄리아 도널드슨	김선희
196	문학	평화를 나누는 그림 편지	초록개구리	김하연 외 75인	노경아
197	문학	하우스프라우	(주)열린책들	질 알렉산더 에스바움	박현주
198	역사/지리/관광	10대에게 권하는 역사	글담	김한중	

연번	신청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자
199	역사/지리/ 관광	Fe연대기 : 김서형의 빅히스토리	도서출판 동 아시아	김서형	
200	역사/지리/ 관광	간신 :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	(주)도서출판 삼인	오창익, 오항 녕	
201	역사/지리/ 관광	걸어서 국토일주 코리안둘레길(1-2) : 휴전선과 해안선을 따라 걷는 국토순례길	지식과감성#	이종호	
202	역사/지리/ 관광	과학문화유산답사기(4) : 공룡 편	문화유람	이종호	
203	역사/지리/ 관광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생각정원	김민철 외 17 인	
204	역사/지리/ 관광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인물과사상	이영미	
205	역사/지리/ 관광	명나라 역대 황제 평전	주류성 출판 사	강정만	
206	역사/지리/ 관광	불화의 비밀	(주)조계종출 판사	자현	
207	역사/지리/ 관광	빨강의 문화사 : 동굴 벽화에서 디지털까지	컬처룩	스파이크 버클 로	이영기
208	역사/지리/ 관광	서울 문학 기행	(주)북이십일	방민호	
209	역사/지리/ 관광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8)	도서출판 오 월의봄	서중석, 김덕 련	
210	역사/지리/ 관광	세계화의 풍경들 : 그림의 창으로 조망하는 세계 경제 2천 년	(주)아트북스	송병건	
211	역사/지리/ 관광	역사농단 : 1948년 건국론과 건국절	역사공간	한시준	
212	역사/지리/ 관광	역사의 시작은 현재다 : 미래를 위해 과거를 보다	도서출판 개 마고원	이병철	
213	역사/지리/ 관광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서해문집	황선도	
214	역사/지리/ 관광	이순신의 거북선 노트	알에이치코리 아	김지연	
215	역사/지리/ 관광	전쟁과 무기의 세계사	채륜	이내주	
216	역사/지리/ 관광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 조선왕실의 의례와 문화(2)	세창출판사	김문식	
217	역사/지리/ 관광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세창출판사	김경현	
218	역사/지리/ 관광	키워드로 읽는 중국의 역사	홍문각	정지호	
219	역사/지리/ 관광	한자 속의 중국 신화와 역사 이야기	주류성 출판 사	양동숙	
220	역사/지리/ 관광	해설 대동여지도	(주)진선출판 사	최선웅, 민병 준	